

특집

마무리 앞둔 총장선출, ‘다음’을 위한 성찰 필요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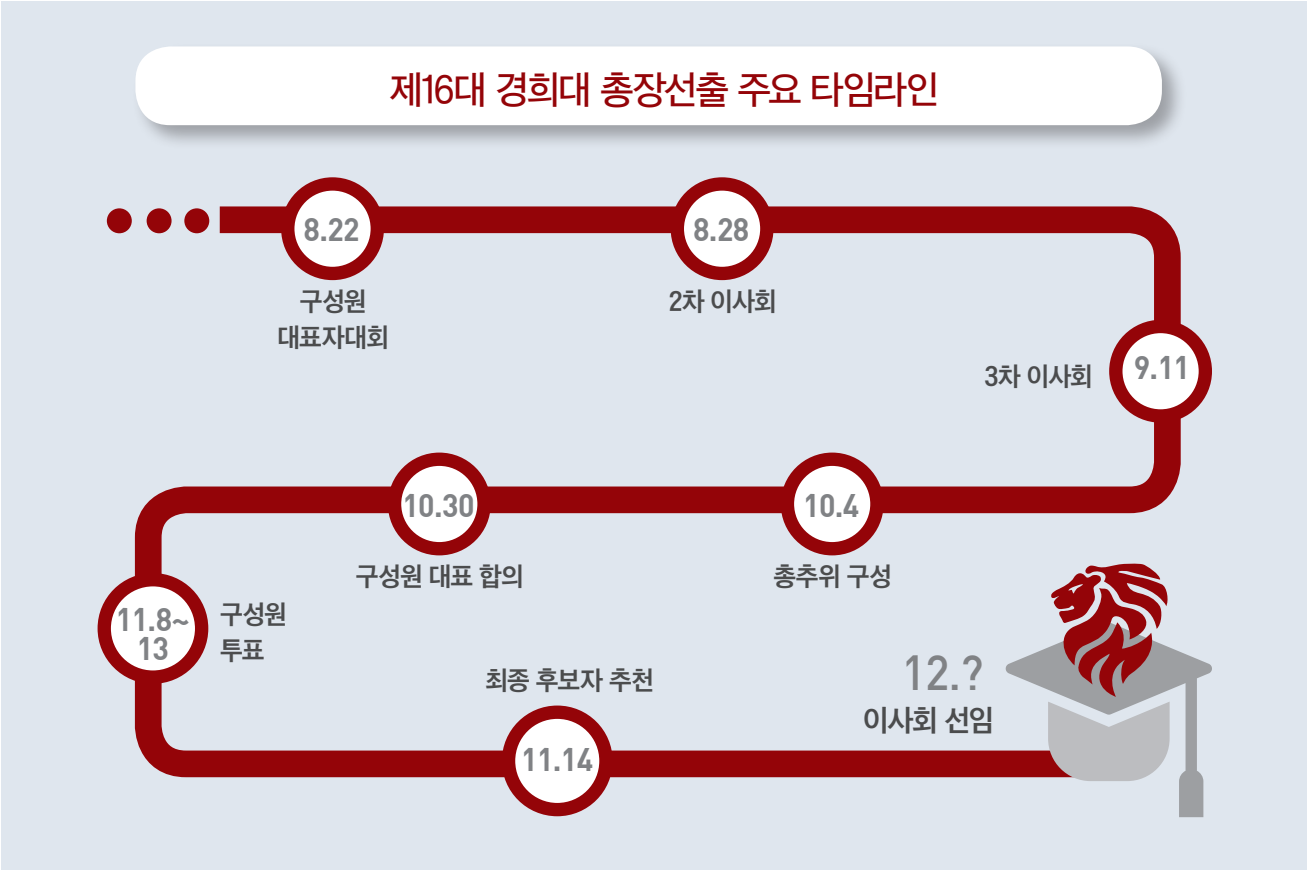
지난달 14일 구성된 손으로 뽑은 총장 후보가 발표됐다. 이로써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선출 프로세스는 그 마지막 단계인 이사회 선임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민주적 총장선출에 대한 요구가 처음 제기됐다고 할 수 있는 지난 2014년부터를 굽어보면 긴 시간 이어온 논의가 곧 결실을 맺는 것이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70년 경희 역사상 최초라는 기대감과 무게감에 구성원 단체와 학교 당국 대표들이 큰 사망감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는 경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얻은 경험과 지혜는 향후 경희 발전에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노조 한상 위원장 역시 “경희 70년 역사에서 최초로 구성원 투표에 의한 총장 후보가 추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며 총장선출 과정이 갖는 가치에 공감했다.

구성원 대표, 사상 첫 민주적 총장선출 가치에 입 모아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지었기에 곧 우리 손으로 뽑은 총장이 선임될 것”이라며 “‘첫 번째’를 해냈으니 다음도 있을 텐데 부디 다음 번 총장선출은 더 성숙한 모습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실상 모든 구성원 대표가 ‘다음’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장선출이 더욱 의미를 가진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우리대학은 교수와 직원 등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임 투표를 진행했던 사례도 있었지만 사실상 총장선출은 법인 이사회의 선임으로 이뤄



져 왔다. 하지만 이번 총장선출은 후보 추천과정에서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보장했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은 우리대학이 대학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도 민주화 정신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는 말처럼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총장선출은 그 논의 과정에서 투표반영비율, 선출방식, 시행세칙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이에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소통 단위가 많고 각 단위 대표의 임기가 상이하면서 의견 합일이 어려워 여러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희 구성원이라는 전체 범위에서가 아니라 각 구성원 단체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선출 논의 초기에는 ‘경

희대학교에는 어떤 총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의지도 존재했었다”며 “그러나 각 집단의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다보니 투표반영비율이나 선출방식과 같은 절차적 문제로 방향이 쏠린 것 같다”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많은 갈등 원인은 공동이 아닌 각 단체에 초점 맞춰진 까닭

실제로 박영국 직무대행은 총장선출 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된 점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들며 “우리대학에 적합한 총장상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의회 강 의장 역시 “발견된 총장선출제를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와 경희정신에 기반한 총장상을 도출해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열된 논의 중 받은 상처, 문제점, 긍정적 부분을 성찰하고 보완하는 자

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전 회장은 “다음 총장선출에서는 우리대학을 잘 이끌 총장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져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를 물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총장을 뽑고자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이 빈번히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이 장기화 된 데에는 갈등관리 체계가 미비했다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총장선출이 급박하게 이뤄진 데에는 구성원 합의가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한 까닭도 있다. 당초 논의되던 1안에서 구성원 간 투표반영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2차 이사회가 별다른 의결 사안 없이 끝났고 결국 3차 이사회에 이르러서야 2안이라는 새로운 선출방식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1노조 한 위원장은 “이견 조율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논의 중이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학내 구성원 대표 간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지만, 직원 구성원 간 투표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를 요구했다”며 “이후 최종적으로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 동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만장일치와 과반수 동의 사이에서 시시각각의 결 기준이 바뀐 것이다.

갈등 장기화 원인은 갈등관리 체계의 미비

이에 서울캠 총학 김 회장은 “어떻게 의결할 것인가와 더불어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범위에서 의결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어떤 문제는 직원 간 결정하도록 하고 또 어떤 문제는 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는 등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제캠 총학 전 회장은 “이밖에도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단절하고 성명서와 대자보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모습도 기준 부재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며 갈등 해결을 위한 기준이 부재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서울캠 총학 김 회장은 “전체의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생, 직원, 교수 등 각 단체가 가진 특성을 고려해 해당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노조 한 위원장은 “다음 총장선출에서는 선거 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지금 뭐할 때?

#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1.19.(화) ~ 12.17.(화)

- 입시가 끝난 수험생도 신청 가능!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할 것!
- 본인 및 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기간: '19.11.19.(화) 9시 ~ 12.17.(화)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19.11.19.(화) 9시 ~ 12.19.(목)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입학예정자(현 고3, 재수생 등),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문의: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서울C] 2020-1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19.12.09.(월) ~ 2020.01.12.(일) 24:00 [5주간]
- 대상장학: (성적)우수, 우정, 밝은사회, 실기, 계속장학(임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
-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 방법	인포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0-1학기 교내장학 신청 (* 학자금 조달방법: 장학금 선택, * 동행장학금: 학생 선택 사항) ※ 신청 후 장학신청 확인을 조회하여 장학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서류 제출처 (해당자에 한함)	- 전학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록제외정보 없음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개인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변경' → '제외정보변경'에서 변경 정보 입력 후 신청할 것) - 장학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하며 별도 제출 불필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성적)우수장학: 어학성적 증빙 등 ※ 단과대학별 별도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단과대학에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할 것 - 고시장학(신규): 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서류제출기간: 2020.01.20.(월) 09:00 ~ 01.22.(수) 17:30
장학지원센터 (청운관 1층)	- 장재학생(신규): 장재인 등록카드 사본 1부
학생지원센터 (청운관 1층)	- 보훈장학(신규): 대학입학금 및 수료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정 발행)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공자외의 관계증명서류 1부, 본인 신 분증 사본 1부 ※ 서류제출기간: 2020.01.06.(월) 09:00 ~ 01.17.(금) 17:30 ※ 기존 보훈 계속장학생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보훈장학(신규) 대상자 여부는 보훈지청(02-944-9217)으로 문의 - 경희가족장학(신규):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서류제출기간: 2020.01.20.(월) 09:00 ~ 01.22.(수) 17:30

**선발기준 자격기준**

- 2020-1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유의사항**

- (성적)우수장학 장학생은 교내장학 신청자에 한하여 선발함 ※ 교내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장학 수혜불가
- 우정장학 수혜희망자는 2020-1학기 국가장학금(1차)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우정장학을 지급함 ※ 2020-1학기 국가장학금(1차) 신청기간: 2019.11.19.(화) 09:00 ~ 12.17.(화) 18:00
- 교내 계속장학생(임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도 반드시 교내장학을 신청해야 함
-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절대 연장불가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2020-1학기 미등록시 해당 장학은 선발이 취소됨 ※ 2020-1학기 휴학 예정시 휴학 전 등록금고지서 장학내역을 필히 확인한 후 등록휴학/미 등록휴학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 직전학기 교환학생/경기현장연수생일 경우 9학점 이상 이수(Pass)한 경우에 한해 장학 수혜 가능
-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 학기에 전출(전입)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성적)우수장학 수혜 불가 (단, 우수장학 외 타장학은 수혜가능)
- 2020-1학기 복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학기 개시 후 별도의 우정장학 신청요망 ※ 단,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장학지급방법**

- 등록금 지원 장학: (학기개시 전) 등록금 고지서 감면 / (학기개시 후) 계좌이체 또는 대출상환 ※ 고지서감면의 경우 납입액이 '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0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등록금 이외 지원 장학: 학기 중 계좌이체 지급

**장학별 문의처**

장학명	문의처
우정장학, 계속장학(임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장재학생 등)	학생지원센터(장학) (02-961-0045-0046)
우수장학, 밝은사회장학(단과대학), 실기장학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밝은사회장학(총학생회)	학생지원센터(학생) (02-961-0047)
밝은사회장학(신문방송국)	신문방송국 (02-961-0094)
밝은사회장학(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02-961-0072)
밝은사회장학(학군단)	학군단 (02-961-0085)